

월/요/광/장

곽수중



미국에서 생활할 때다. 꽃과 나무를 워낙 좋아하다보니, 작은 공간만 있어도 꽃이나 나무를 사다 심었다. 어느 해 가을 초엽, 뜰에 코스모스 씨를 심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싹이 트더니 자라기 시작했다.

한다면, 일단은 잘 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 '잘 생긴 사람은 인플라센을 한다'고 하지만 고전적 나오는 '박씨 부인전'에서 박씨 부인은 절색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집안을 일으키는

도, 노틀담성당의 부주교이면서 파지모도를 볼때 감춰준 클로드 프롤로, 자신의 복수를 구해 준 장교를 사랑한 16살의 집사 에스메랄다. 결국 프롤로가 놓아 주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질투는 에스메랄다로 하여금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만들었다.

각색해 보자. 에스메랄다가 페뷔스보다는 프롤로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페뷔스가 에스메랄다의 칼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성당의 부주교인 카톨릭이 국교인 프랑스에서 부귀영화는 다 누렸을 법하다. 당시 교회는 신성불가침에 특권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곳이었다.

코스모스와 '노틀담의 꼽추'

현모양처로 묘사된다. 생긴 대로 산다면, 인간은 유전학적으로 지구상에서 오래 전에 도태되었을 지 모른다. 생존법칙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물론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피난처는 아닌 듯하다. 노틀담성당의 부주교가 프롤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프롤로는 파지모도에 의해 죽음을 맞고, 에스메랄다는 싸움의 와중에서 죽는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비숫한 것 같다. 히로 예탁(喜怒哀樂)의 표현에 차이가 있을지 언정,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웃는다. 영화를 보면 협상국경에 생긴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을 가리지 않고 약역을 도맡는다. 생김새로 사람을 평가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가 생각난다. 195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안소니 퀴와 지나 로라 브리짓 주연의 영화도 있다. 최근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반신불구'였던 파지모

맥우를 뺀는 오디션을 가정하면 프롤로가 가장 약당스럽고, 에스메랄다와 장교 페뷔스가 가장 잘 생겼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왜 프롤로에게 모든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 못한 것일까, 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 16살의 에스메랄다는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틀림 나스니,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권세와 부에 집착하느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를 뿌린다. 보라색 코스모스 갈래잎이 흔들거린다. 지금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어떤 두 사람에게 소설 '노틀담의 꼽추'를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제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성공체전' 이끈 힘모아 지역발전 앞당기자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14일 폐막됐다. 이번 광주체전은 일부 결구려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성공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체전이였다. 대회기간 경기장 주변에 각종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고 광주시디자인비엔날레와 종로초 축제 등을 열어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했다.

체전은 국내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결산하는 무대다. 일부에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체전을 통해 수많은 스타들을 발굴,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유지해왔다.

무엇보다 광주체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힘이였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스들이 선수단을 지원했고 교통질서 확립과 친절·정결 캠페인을 벌였다.

성과는 적지 않다. 한국 수영의 기린아 박태환은 자유형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국제무대에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광주시는 체전을 통해 문화도시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산업 등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노사하계중화 화합 등 상생의 이미지도 새롭게 각인시켰다.

광주체전은 스포츠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문화·

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통합신당 경선 후유증 최소화 대책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14일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통합신당은 15일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갖고 8개 지역 선거인단 투표와 제 3차 확대전환 투표, 여론조사 발표와 결과를 발표한다.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능력도 부족했다. 불법선거 논란이 뜨거웠지만 대응을 소홀히 해 사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합신당이 숙한 과파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마친 것은 다행이다. 후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경선일정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한 명의 후보도 이탈하지 않고 완주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선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수도무하다. 우선 경선 후유증이다. 후보간 고소·고발에서 드러나듯 경선 불복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선 전반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초반부터 '유형 선거인단', '박스패키지', '금품매수' 등 논란이 일었고 후보진영간 폭행과 불법·부정 선거 시비 등으로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벌어진 대선후보 단일화도 넘어야 할 고비다. 민주당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후보 등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범좌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우리 모두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내 형제라 생각하고 포근히

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념적·정치적 동기에서 재판을 역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학자 제롬 프랑크(1889~1957)는 "과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재판관은 역사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역사가가 다루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문서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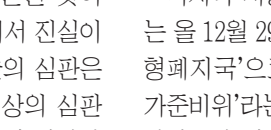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형집행을 당한 사형수는 902명.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을 끝으로 10년동안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본격 가동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사회와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해결한 수범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꼭 10년이 되는 올 12월 29일이면 한국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본격 가동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사회와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해결한 수범 사례가 될 것이다.

사형폐지국



관결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사형이다. 흉악범죄도 많았지만 분단, 전쟁, 독재

이뤄지지 않았다. 그 자신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그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 재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사형수 64명이 현재 전국 교도소에서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www.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ing contac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법조 칼럼

문형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생활환경·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노력해도 일정한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생활환경·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노력해도 일정한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약 400명의 탈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기발표가 끝난 후 어렸을 때부터 익혔다는 아코디언 솜씨로 고향의 봄을 연주하면서 통일열의 열의를 노래할 때 참석자 모두는 환한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광주지방경찰청과의 협약에서 결핵해 한국에 살고 있는 해외이주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투명성이란 것이 명확하고 간단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같은 투명성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주민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필자는 몇 년 동안 탈북자법률지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변호사>

'물건 없는데도 오라가라' 부동산중개업소 상술에 분통

현재 살고 있는 개인주택이 좀 작고 낡아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 아파트를 찾았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확인, 부동산중개업소 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세 물건이 있다고 해 가보면 "그 물건이 조금 전 팔렸"다는 것이다.

식이라는 것이다. 전화를 하면 "물건이 없는데도 일단 있다"고 말해 손님 오게 한 뒤 진짜 다른 물건이 있는지 찾는 방식이다.

의회·집행부 상생의 길

시위로 인해 행정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최근 디지털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과 향후 10년간 100억원 대의 주변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인근에 골프장 유치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체결했다. 이 처리장은 최첨단 공법이 도입된 소각 및 매립시설과 완벽하 차수 시설을 갖춰 영광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신여성 태아검진 비용 의료보험 혜택 크게 늘려야

서른 여덟 살의 주부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여건이 맞지 않아 미루다 최근 열살 된 남자 아이와 아홉 살 터울의 둘째 아이를 가졌다.

임산부 부담이 너무 크다. 저출산 문제를 국민 개개인에게만 책임 지우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 할 일이다.